# 자유분방한 글쓰기와 유럽의 지성

## 미셸 푸코 지음「광기의 역사」

매우 설익은 이름. 미셸 푸코. 생소한 이름만큼 그의 생각들, 생각방식, 또 문제의식조차 낯설다. 그런데 왜 미셸 푸코를 읽어야 할까? 왜 광기가 철학적 주제로 등장할까? 이런 물음들을 품으면서도, 호기심이라 하기엔 상당한 시간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의 책을 대하면서 당혹감마저 느낀다.

보통 철학책에선 찾아 볼 수 없는 두서없는 듯한 사실들의 나열, 시간적 연속성이 없은 앞뒤없는 행간에서 일반화시킨 그의 생각의 파편들. 이런 자유분방한 글쓰기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는 서구이성적 사유의 부끄러운 그림자. 이 서구의 자태는 심지어 별 비판없이 서구문물을 동경했던 우리에게 큰 충격마저 준다.

광인과 정상인을 구분해 주는 기준은 무엇일까? 또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을까? 푸코는 이런 물음들을 자문하면서 광기가 규정되기 이전 어떻게 광기가 비이성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는지 살펴볼 것을 권고한다. 푸코가 찾아낸 놀라운 사실은 광기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근세초에는 본래 이성과 대립된 병적 상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광기가 비이성이란 병적 증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을까? 이 물음에 대해 푸코의 지적 작업은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 낸다. 왜냐하면 푸코에 따르면 이성과 비이성의 분화점은 근대 부르조아 계급의 도덕인식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광기가 비이성과 결탁하는 19세기 튜크와 피넬의 종교적·지적 결과는 전혀 과학적 탐구와는 무관하다. 그들 작업이 수반하는 물리적 폭력, 즉 수용소에 격리시키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푸코는 이러한 지적 행위들의 근간을 그 시대의 부르조와 사회의 가부장적 위계질서에서 찾는다. 결국 푸코의 연구결과는 합리성이 객관적인 실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산물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현대에 이르러 광기는 고전주의시대의 광기가 더이상 아니다. 오히려 광기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표출로 이해된다. 따라서 타자로만 인식되던 광기를 어떻게 자연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떠오른다.

푸코의 작품은 매우 어려운 작품이다. 그 난해한 문체뿐만 아니라, 그의 문제의식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문물을 배워야 하는 우리로선 보다 비판적인 태도로 푸코의 논의를 세심하게 검토해 볼 시기인 것 같다.

이민수

서울 성북구 정릉4동 820번지

## 「사람의 등불」

겨울은 역시 쌀쌀한 날씨가 제격이다. 그런 추운 날에 따뜻한 문학작품을 대한다는 것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가진 행복일 것이다. 무릇 문학이란 사람에 대한 탐구작업이라 할 때-그래서 문학은 인간학이라는 정의가 성립한다-작품 속에서 따뜻한 인물들을 만나고, 그들을 어루만지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만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인 것이다.

고재종 시인의 세번째 시집「사람의 등불」(실천문학사)에서 우리는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앞의 두 시집에서 농민시인으로서 작가가 보여주는 농민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의 시들이 이 시집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차창 밖으로 지나치는 평온한 전원풍경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로서 그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지친 이웃들을 만난다. 농산물 수입과 일관성없는 당국의 살농정책으로 인해 벼랑에 서 있는 농촌과 그래도 그 땅을 꿋꿋이 지키고 살아가는 농사꾼들을 만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들은 '서늘하고 푸르른 밤' '막소주 한잔 나눌 이 없는' 농민들의 그리움과 '아무리 독경 읽어도/자꼬 비어가는' 농촌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웬수 웬수 세상사/뒤집어져라' 하는 한탄이 깊이 배어 있다. 하지만 시인의 세상보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즉 그런 한탄이나 원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 밝게 빛나는 세상 그리어/우리는 오늘도 논둑에 우뚝 서는구나' 라는 현실에 눈뜬 당당한 농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시는 여기서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 점들이 그의 시들이 가지는 큰 장점이다. 하지만 시집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당당함이 지나쳐 형상화를 그르친 작품이 눈에 띄는 것이 아쉽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시들이 대부분 제목이나 제재로 통해 볼 때 농한기인 겨울에 씌여진 시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준다. 진정 사람의 땀냄새가 보여주는 살아있는 형상과 아름다움과 그렇지 못한 것들과의 차이점을 말이다.

즉 문학이란 일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그 속에는 몇가지 전제가 있다는 점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바로 단순한 일하는 사람이 아닌 현실의 한복판, -그건 공장일 수도 있고 논, 밭, 거리일 수도 있다-에 서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그렇듯 고재종 시인의「사람의 등불」은 따뜻한 사람들의 냄새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일정 부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재종 시인을 진정한 농민시인으로서 평가받게 할 것이다.

김병우

서울 동대문구 회기1동

## 「말하는 떡갈나무」

지금의 어린이세대는 그들의 부모들보다 다방면에서 월등히 좋은 혜택을 누리며 성장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어린이들이 접하게 되는 동화의 세계가 아닐런지. 동화하면 으레히 "공주는 어쩌고……, 왕자는 저쩌고……"하는 식의 이야기만을 수없이 들어온 부모세대와는 달리 요즘 어린이들이 만나게 되는 동화는 우선 아주 다양하다. 무궁무진할 정도로 이야기 자체도 다양할 뿐 아니라 작가도 다양하며,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세계관도 가치관도 다양하다. 순전한 우리네 것도 많이 나왔으며, 외국인의 것이 곱게 번역되어나온 것도 적지 않다. 분명 이즈음의 아이들은 동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될 성싶다.

도서출판 산하에서 시리즈물로 낸 책 가운데 우리에게는 다른 방면으로 더욱 알려져 있는 조르주 상드의 창작동화집이 하나 있다. 이 책을 보고서 상드가 손녀를 위해 동화를 지어줄 정도로 인자한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상드에게 그런 역사가 숨어있었다니! 분명 놀랍고도 엄청난 발견이었다. 그래서 우선은 호기심 반 궁금증 반으로 책을 들추어 본다.

「말하는 떡갈나무」(조르주 상드 지음, 정영미 옮김)는 네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말하는 떡갈나무」「분홍빛 구름」「꽃들의 이야기」「왕눈이 요정」은 옮긴이의 표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점들—성실함, 작은 것들의 소중함, 사물을 편견없이 그대로 바라보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놀랍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다.

이 책은 이미 나이를 먹어버린 어른이 읽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책이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읽어본 후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도 좋을 성싶다. 그만큼 지은이인 상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지극히 건전하다. 가장 눈에 띄는 메시지는 '근면한 노동의 중요성' '일의 기쁨'이다. 이것은 분명 다른 동화들에서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 관점일뿐더러 특이하지만 중요한 제안이다. 누구나—어린이들이라고 하더라도—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근면이야말로 누구나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 상드의 주장이다. 다분히 교훈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 주장이 동화 속에 절묘하게 녹아 스며들어서 게으른 머릿속을 흔들어 깨운다.

미래에 대한 몽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으른 어른들에게도 상드는 인자한 할머니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읽어보시길!

송선아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77-3

## 「그곳에 이르는 먼 길」

「그곳에 이르는 먼 길」에는 다섯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첫번째로 실린「숨어있는 땅」은 가난한 집안의 맏이인 주인공이 어렵사리 대학에 들어가나 스스로 개인의 영달을 포기하고 기층민중의 일원이 되어 새 희망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와 유사한 소재를 다룬 다른 작품들과 이 작품이 구별되는 점은 작가가 여기에 어떤 메시지도 강력한 희망도 담은 바 없이 지극히 담담하게 써내려갔다는 점이다. 네번째 이야기인「마음의 감옥」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로 노동운동과 빈민운동에 온 삶을 다 바친 동생의 죽음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을 형의 시선에서 풀어낸 것으로 이념의 대립을 초월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지적하는 점이 앞서의 작품과 차이가 날 뿐이다.

두번째와 세번째 이야기로 실린「가을별」과「세월의 너울」은 각기 어머니가 주제인데, 여기서의 어머니는 우아하고 기품있으며 당당하게 그려져 있어 이 점이 대부분 강인하고 억센

여인으로 그려지던 어머니의 모습과 구별되어진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세월의 인고를 조용히 인내하며 개인의 희생으로 모두(가족)의 평안을 건졌다는 점에서는 여느 작품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잔잔하게 그려지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끼는 것은 읽는 묘미이다.

중편에 해당하는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은 징용한국인의 피폭을 다룬 문제로 한 편의 논문보다 훨씬 더 설득력있고 집요하게 읽는 이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아울러 핵의 공포에 대해 이보다 더 실감나게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지나간 역사를 소홀히 하는 우리네의 무성의에 대한 질책도 가히 정도 이상이다. 한순간의 웅변보다는 소리없는 감동이 오래도록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다양한 관심은 뭍사람들의 망각을 뒤흔들기에 적합하다.

이숭이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81-5

## 「거꾸로 읽는 세계사」

드레퓌스사건-진실의 승리와 더불어 영원한 이름, 피의 일요일-혁명과 전쟁의 20세기 그 서곡, 사라예보사건-세계를 불사른 프린시프의 총탄, 10월혁명-인간이 마침내 사회역사를 정복하다, 대공황-파산한 '보이지 않는 손', 대장정-붉은 중국 탄생의 신화, 아돌프 히틀러-벌거벗은 현대 자본주의의 얼굴, 거부하는 팔레스타인-피와 눈물이 흐르는 수난의 땅, 미완의 혁명 4·19-자유의 비결은 용기일 뿐이다, 베트남전쟁-골리앗을 구원한 현대의 다윗, 검은 이카루스, 말콤X-번영의 뒷골목 할렘의 암울한 미래, 일본의 역사왜곡-일본제국주의 부활의 행진곡, 핵과 인간-해방된 자연의 힘이 인간을 역습하다. 이상의 기술된 굵직한 사건들은 누구나가 알고는 있는 세계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건들이다. 다만 우리가 여지껏 알아왔던 게 얄팍한 지식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면, 「거꾸로 읽는 세계사」(유시민 지음·도서출판 푸른나무)에서는 이 사건들의 전말을, 그래서 뒷얘기같은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저자 유시민은 역사학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전문도서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 책의 저자는 오히려 경제를 배우고자 대학에 들어갔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 배움조차 끝내지 못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순전히 비전공자이자 비전문가인 한 사람의 개인적 관심에서 나온 책이랄 수 있겠다. 이것은 또한 역설적으로 전문가에 의해 마땅히 나왔어야 할 책이 이제사 나오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즉 우리는 오히려 전문가에 의해 가리워진 것들에 이제껏 익숙해왔다는 점이다. 이 점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저자 유시민의 집필의도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다루고 있는 열세가지의 사건들은 세계사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인 만큼 이 사건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누구나가 한번쯤 읽어봄직하다. 이제껏 알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는 즐거움도 묘미려니와 한 사건이 어떻게 포장되어 거짓으로 유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도 하나의 소득이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고찰을 덧붙일 필요없이 저자의 의도는 충분히 성공한 듯 보여진다. 역사의 사건은 취사선택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말을 진실되게 밝혀놓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그 평가는 후세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할 몫일 뿐이다.

홍구옥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APT 1211동 502호

##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 그는 사랑스런 사람이다. 그를 처음 접한 때는 고3 어려운 시절이었다. 생의 의미와 가치보다는 눈앞에 닥친 관문이 더 중요했던 시절이라 그가 이야기해 준 인생의 아름다움이나 자유로움에 공감할 수 없었다.

얼마전 불현듯 그가 생각났다. 다시금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나 역시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와 마찬가지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는 삶에 생명을 불어넣을 줄 아는 사람이며 삶이 사랑할 만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주는 사람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책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실존인물 게오르그 조르바 앞에서보다 더 수치를 느꼈던 적은 없었다고 고백한다.

조르바는 소설 속의 나(화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는 인생을 사랑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해지라고 가르치며, 자유로와지는 법을 이야기한다. 그는 자유로와지는 것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자신이 가진 속수무책의 정열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조르바와 소설 속의 나와의 헤어짐에 앞서 조르바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 "당신은 자유롭지 않아요. 당신이 묶인 줄은 다른 사람의 끈과 다를지 모릅니다. 그것뿐이오. 두목, 당신은 긴 줄 끝에 있어요. 당신은 오고 가고, 그리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그 끈을 잘라버리지 못해요. 그런 끈을 자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를 거요." "두목,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바보, 아시겠어요?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좋은 머리가 있으니까 잘 해 나가겠지요. … 머리란 좀상스런 가게 주인이지요. 가진 걸 다 걸어 볼 생각은 않고 꼭 예비금은 남겨두니까. 이러니 자를 수 없지요. 아니, 아니야! 더 붙잡아 맬 뿐이지, 이 잡것이! 끈을 놓쳐버리면 머리라는 이 병신은 그만 허둥지둥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인간이 이 끈을 자르지 않을 바에야 살 맛이 뭐 나겠어요?…"

그의 거침없는 웅변에 우리는 가슴 뜨끔해짐과 오기를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매료될 것이다. 그는 강한 사람이다. 가진 것 없이 베풀 줄 알며, 배움없이 인생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인간이다.

현대의 나약하고 메말라가는 우리에게 조르바는 신선한 바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은주

대전시 서구 삼천동 동성APT 3-206

출판사와 함께 성장하는 지업사 각종 지류(紙類) 도매 소매

고려지업사

서적지 • 모조지 • 아트지 • 엠보싱지 • 레쟈크지

■주문생산환영■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42-1 한덕빌딩 904호 전화 766-7211~3, 팩시밀리 : 766-7214

바코드의 희소식 弘益컴퓨터印刷(株) 弘益電子出版研究所

ISBN등재부 개발완료(600dpi LBP로 출력)

弘益컴퓨터印刷에서는 『ISBN코드 및 EAN 바코드 자동생성프로그램』을 독자개발,바코드 인쇄원판을 제작·공급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FAX를 이용하시어 발행자번호(출판사번호), 서명식별번호(일련번호), 부가기호만 알려 주십시요.

전산조판 및 인쇄 전문업체,PC데이타변환(입력기:30대,출력기:3대)

ISBN 89-320-0541-9

마포구서교동 337-27 성지빌딩 3층
☎ : 323-6333~5 FAX : 337-0460
좌측의 바코드는 50% 축소한것입니다
발행자번호 : 320
서명식별번호 : 0541
부 가 기 호 : 33800